"MLB.com 류현진 행선지 1~3순위 CWS·MIN·NYY"

"다저스에 잔류 원하지만 많은 구단 관심 가질 것"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이 FA 류현진(32)을 영입해야 할 팀 '1~3순위'로 시카고 화이트삭스, 미네소타 트윈스, 뉴욕 양키스를 꼽았다.

MLB.com은 23일(한국시간) '류현진에게 로스앤젤레스(LA)를 떠나라고 할 수 있는 팀은 어디'라는 제목의 기사로 류현진의 행선지를 전망했다.

MLB.com은 "LA는 류현진에게 미국의 고향 같은 도시다. 류현진은 남부 캘리포니아에 머무르길 원한다"며 류현진의 다저스 잔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2시즌 동안 25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들 중 평균자책점이 2위인 류현진에게는 많은 구단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류현진의 이적이 적합한' 16개팀들과 그 이유를 자세히 분석했다.

텍사스 레인저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탬파베이 레이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LA 에인절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4~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류현진을 영입해야 하지만 상황이 복잡하다"는 한 줄 설명이 따라붙었다.

밀워키 브루어스, 콜로라도 로키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시카고 컵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보스턴 레드삭스는 11~16위로 꼽혔다. 이들에게는 "류현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곁들였다.

이어 MLB.com은 1~3위로 화이트삭스, 미네소타, 양키스를 언급하며 '류현진이 정말 필요한 팀'이라고 특별히 짚었다.

먼저 양키스에 대해서는 "왼손 타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류현진을 원할 수 있다. 또한 양키스는 에인절스보다 더 좋은 선발투수를 영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류현진이 LA를 떠나게 할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게릿 콜,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영입에 실패하면 홈 팬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위로 꼽은 미네소타를 두고는 "디비전시리즈에서 강한 선발투수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미네소타는 2014년 필 휴즈 이후 류현진만한 선발투수를 보유하지 못했다. 류현진은 완벽한 매물이 될 수 있지만, 류현진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한다는 점이 변수"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MLB.com은 "팀 앤더슨, 루카스 지울리토, 요안 몬카다 등이 이번 시즌 발전했다. 지금은 선발투수를 영입할 좋은 시기"라며 "화이트삭스는 포수 야스마니 그랜달과 FA 계약을 맺었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된다. 류현진이 LA를 떠나도록 돈을 쓸 팀이 있다면 바로 이 팀"이라고 화이트삭스를 류현진 영입 1순위 구단으로 강조했다.

美언론, 김광현 연봉 150만 달러 예상

미국 한 언론이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한 김광현(31)에 대해 과거 일본인투수 이와쿠마 히사시와 비슷한 수준의 계약규모를 예상했다.

CBS스포츠는 24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비시즌 동향을 설명하며 그중 김광현의 도전소식을 전했다.

또한 김광현이 마주할 포스팅 시스템 과정, 그리고 전날 디 애슬레틱 보도를 인용해 이미 시카고 컵스, LA 다저스, 캔자스시티 로열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뉴욕 메츠 등의 구단이 김광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광현의 계약규모에 대해 과거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이와쿠마가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이와쿠마는 2012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1년 150만 달러에 인센티브 340만 달러를 추가로 받는 계약을 맺었다.

손흥민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할 때"

토트넘, 웨스트햄에 3-2 勝…모리뉴에 첫 골·첫 승 안겨

토트넘의 새로운 수장이 된 조제 모리뉴 감독에게 첫 골과 첫 승을 안긴 손흥민이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한다"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모리뉴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23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2로 승리했다.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은 선제골을 넣고 두 번째 득점을 어시스트하는 등 1골1도움으로 펄펄 날며 모리뉴에게 첫 승을 선사했다.

승점 17점(4승5무4패)이 된 토트넘은 한 경기 덜 치른 아스널(4승5무3패·승점 17)에 골득실에 앞선 6위로 수직 상승했다.

이날 손흥민은 전반 36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받은 뒤 수비수 한 명을 개인기로 제친 뒤 강력한 왼발 슈팅을 시도, 선제골의 주인공이 됐다. 이어 전반 43분에는 특유의 스피드로 왼쪽 측면을 허문 뒤 왼발 크로스를 올려 루카스 모우라의 골을 도왔다.

손흥민을 앞세운 토트넘은 3-0까지 앞서 나가다 후반 중반 이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2실점, 턱밑까지 추격을 당했으나 1골차를 유지해 3-2 승리를 거머쥐었다.

경기 후 손흥민은 '변화'에 발맞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흥민은 "우리는 지난 5년 가까이 '후방 빌드업'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차근차근 전진하며 공격에 힘을 쓰던 포체티노 감독에 비해 밸런스를 중시하고 더욱 효율적인 루트를 선호하는 모리뉴 감독의 차이를 빗댄 설명으로 해석된다.

이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했기에 힘든 한 주였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으나 우리는 충분히 이길 자격이 있었다. 감독님도 승리를 기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우리는 3-0까지 앞서고 있었다"면서 "이런 경기는 끝까지 더 집중해 보다 많은 골을 넣고 끝냈어야한다"고 집중력 결여를 꼬집었다.

국내 훈련 이어가는 나성범, 강한 복귀의지…NC도 반색

예정보다 일찍 귀국 예정…이동욱 감독도 긍정적 전망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중심타자인 나성범(30)이 국내에서 재활훈련을 이어간다. 그의 강한 복귀의지에 소속팀 NC도 함박미소를 짓고 있다.

NC는 23일 "나성범이 예정보다 이른 11월29일에 귀국해 창원 마산구장에서 재활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3일 KIA와 경기 중 주루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부상을 입은 나성범은 이후 내측인대재건술과 바깥쪽 반월판 성형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9월13일부터 미국 LA로 이동해 보라스 스포츠 트레이닝 인스티튜트(BSTI)에서 재활훈련을 진행했다. 당초 연말까지 훈련한 뒤 귀국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장기휴일 등 훈련여건을 고려해 일찍 귀국행 비행기를 탔다.

현재 나성범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복귀에 강한 의지를 전하고 있다. NC 관계자는 "나성범이 워낙 연습벌레다. 훈련에 며칠 공백이 있을 것 같으니 빠른 귀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나성범이 귀국한 뒤 보다 정확한 몸 상태를 확인한다는 것이 NC의 계획. 이동욱 감독은 긍정적이다.

NC 관계자는 "이동욱 감독님은 나성범의 스프링캠프 합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마무리캠프 출국차 LA에서 나성범을 만나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가족과도 떨어진 채 홀로 미국에서 재활훈련을 진행한 나성범의 강한 팀 복귀의지에 NC 구단 측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올 시즌을 5위로 마친 NC는 비시즌 동안 외국인선수 우완 마이크 라이트, 외야수 애런 알테어를 영입했고 내부 FA 박석민, 김태군과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2차 드래프트에서는 투수 2명(홍성민, 강동연)과 외야수 김기완을 영입했다. 아직 검증된 뚜렷한 전력보강 요소는 없다.

하지만 나성범이 성공적으로 복귀한다면 이는 그 어떤 전력보강보다 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공격력 강화는 물론 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